



개별 멘토링은 물론 기관별 멘토링도 필요

행정회계멘토링사업 특별상 수상 오재운 황미영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행정회계멘토링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행정회계멘토링사업은 행정 회계 능력이 취약한 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를 멘토로 파견하여 조직 운영, 회계 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결과 보고회는 사업결과보고, 사업 동영

상 상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우수 멘토, 우수 멘티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부부가 함께 멘토로 활동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오재운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황미영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대리가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취약복지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행정회계멘토링사업 결과보고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큰 상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이 우리 부부의 결혼 1주년이었으나, 멘토링활동으로 챙기기 못하고 지나쳤다. 이렇게 두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특별상을 받게되어, 평생기억에 남는 결혼1주년 선물이 된 것 같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특별상을 자랑하고 싶다.

▶ 두분이 함께 행정회계멘토링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 함께 활동하시면서 겪은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주신다면?

황미영 : 회계멘토링사업에 대해 남편이 먼저 알고 신청하였다.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업무가 많아 주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취약기관의 어려운 현실개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해결책”

그러던 중 ‘관리자보다 실무자가 멘토로서 지원하게되면, 멘티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편이 함께 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장점이라고 하면 주말 혹은 평일 늦은 저녁까지 멘토링 활동을 해도, 서로 이해해줄 수 있어서 가정을 신경쓰지않고 편하게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또 멘티기관 교육 중 의문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전화로 의논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멘토링활동 방식을 이야기 하다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모방할 수 있어서 멘토링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두사람 모두 주말마다 멘토링 활동을 하다보니, 가사 일이 밀리기도 했고 때문에 한밤에 청소하기, 새벽에 세탁하기 등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이어졌다. 또 서로의 멘티기관에 대한 교육 방법 및 내용으로 논의하

다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였다.

▶ 지난 1년여의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보고회가 지난 11월 21일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평을 해주셨는데 행정회계 멘토링사업에 직접 참여한 멘토로서 이번 사업을 평가하신다면?

지난 5월에 있었던 멘토집합교육에서 ‘멘티들에게 행정·회계메뉴얼 책에 있는 내용을 약 20-30%만 이해 시켜도 성공’이라고 이야기 나는 것이 기억난다. 나 자신도 약 30-40%의 목표를 가지고 멘티교육을 시작하였는데 막상 활동을 진행하면서 멘티기관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여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지속적으로 멘토와 멘티기관들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바 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사회복지기관의 회계담당자로, 몇 년간 반복적으로 회계관련 교육을 가면 늘 뻔히 아는 이론공부만 열심히 받고 온다. 그러나 이번 일대일멘토링활동을 통해 멘티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멘토와 멘티기관이 공유하여,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의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멘토링사업을 높게 평가한다.

▶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기관 혹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재윤 : 모든 멘티기관들이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였기에 모두 기억에 남는다.

에피소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 멘토활동을 시작했을때 모든 멘티기관들이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라고 해서 전환을 했는데 별다른 지원도 없이 오히려 복잡한 행정서류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나에게 불평, 불만을 말하였다. 나는 정부의 입장에서 말할 수도 없고 멘티기관의 입장에서 말할 수도 없어 그저 개인

적인 생각을 말하면서 기본적인 행정서류를 갖추어야 우리가 권리를 내세울수 있지 않느냐고 설득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황미영 : 멘토링 활동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피곤에 지친 멘티기관 선생님들이다. 아이들과 생활하느라 지친하루를 보내고 늦은 밤 다시 행정업무를 하는 멘티기관 선생님들을 볼때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기도 하였다. 멘티기관하면 피곤에 지친 선생님 모습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의 모습이 동시에 떠오른다.

에피소드를 꼽자면, 내가 맡은 멘티기관들이 모두 진주와 함안에 있는데 내가 근무하는 부산에서 차로 2시간정도 가야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날뻔 한 적도 있었고 폭우로 차 앞이 보이지 않아 긴장했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 21일 결과보고회에서 멘티기관의 발표를 통해 취약기관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취약기관의 현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재윤 : 취약기관이 행정적인 처리는 미숙할지 몰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는 누구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멘티기관 선생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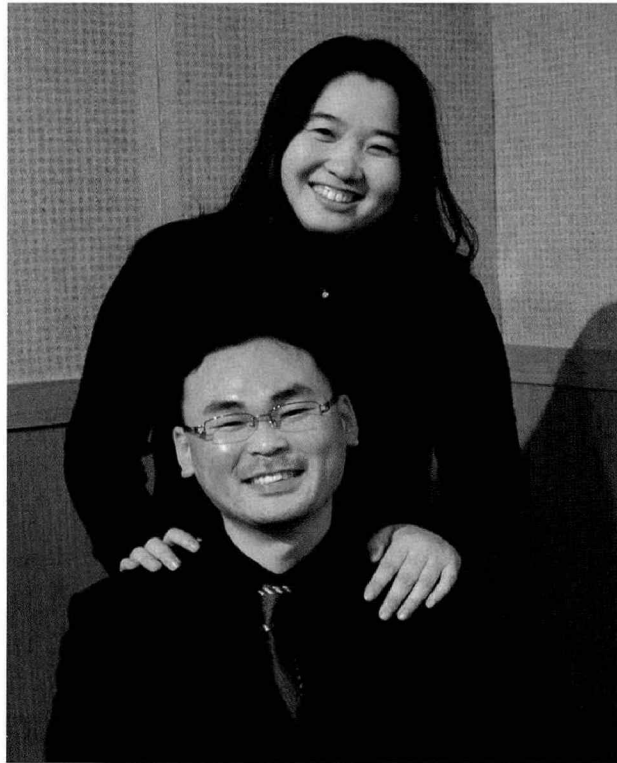
황미영 : 우리는 늘 재정이 문제라고 말한다. 물론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 외에도 공익요원 등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멘티기관 선생님들의 소진된 안스러운 모습은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한다.

◆ 취약기관의 어려운 현실개선을 위한 현장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계의 역할에 대한 제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취약기관의 어려운 현실은 재정적인 문제와 인력부족의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

약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 종사자간의 1:1 멘토링사업은 물론 기관과 취약기관과의 결연을 통한 행정과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약기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된 재정을 마련하고 인력충원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킬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에서 취약복지기관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부부 사회복지사로서 각자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서로에게 멘토, 멘티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부부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지 주로 행정적인처리 부분에서 서로에게 많은 멘토, 멘티가 이루어진다. 서로가 각자의 기관에서 행정처리에 대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면 서로가 연락해서 최상의 해결점을 찾아 적용한다. ■